“동화는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꾸러미”

정소영 동화작가 ‘천년의 아이’
9편 모두 학교 현장 등 경험 소재
표제작은 광주 5·18 다룬 동화
시·소설 등 창작집 엮어낼 계획

“어린이들이 제 동화를 읽으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화는 제게 있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꾸러미이니까요.”

요즘 창작되는 동화는 판타지 위주의 작품이 많다. 그러다보니 자칫 현실성이 결여된 나머지 감동이 반감될 수 있다.

자신이 보거나 들은 이야기, 경험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연계한 창작집이 출간됐다. 수록된 9편 모두 학교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문학적 리얼리티’가 생생하게 다가온다.

정소영 동화작가가 펴낸 ‘천년의 아이’(동서남BOOK)는 경험이 주 소재가 된 창작집이다. 영암 독천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한 정 작가는 전남 시군의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창작활동을 해왔다.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다”는 정 작가.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했다. 지인을 통해 창작집 소식을 알려온 작가는 “아직은 부족해서 망설였다”고 자신을 낮췄다. 그러나 동화를 쓰는 자세나, 문학을 향한 열정은 젊은 작가 못지않았다.

“2014년 작품집을 발간하고 5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창작집입니다. 그동안 문예지나 동인지에 게재했던 작품을 책으로 엮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그러다 지난해 가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서 3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늘 죄스러운 마음에 책을 꼭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창작집 첫 페이지에 “이 책을 나의 어머니 김맹심 여사님께 드립니다”라는 글귀의 사연이 비로소 이해된다. 모든 작가는 아니 모든 예술가는 어머니께 큰 빚을 진 존재라는 말이 새삼 다가온다.

정 작가의 이번 작품들은 경험을 토대로 일정부부 판타지 장치와 의인화 기법이 가미돼 있어 동심을 자극한다. 한편으로 경험적 요소를 서사화 했다는 점에서 어른들이 읽어도 무방하다. 이번 창작집에 실린 9편의 단편 가운데 표제작 ‘천년의 아이’는 광주 5·18을 소재로 한 동화다. 작가는 “최근에 정의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우리 아이들이 옳음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자랐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품으로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작품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어느 할아버지의 꿈에 천년 전 가야의 배를 타고 솟아오르는 소년이 나타난다. 소년은 5·18 당시 시위대를 향해 쏜 총탄에 맞아 죽은 아들 건영이다. 할아버지는 이 꿈을 도자기로 만들어 ‘천년의 아이’라고 명명한다.

다른 작품 ‘신동이와 신지’는 시골학교 세면대 파이프가 터져 물난리가 난 상황을 모티브로 했으며 ‘만연사 배롱나무’는 5·18 때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와 배롱나무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정 작가는 언제 문학에 입문하게 됐을까. “뜻을 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이고 중학교 시절에는 소설을 썼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에는 대학노트에 문집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돌릴 만큼 남다른 문학소녀이기도 했다. 특히 사춘기 때는 매화나무를 좋아해 “‘매화’라는 문집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된 후 소설을 쓰면서는 항상 아이들의 동심에 다가가는 동화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50대에 ‘아동문예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 2014년 ‘세종문학나눔 우수도서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친다. 작가에 대한 꿈도 버리지 못해 문순태 작가가 운영하는 ‘생오지 창작학교’에 다니며 틈틈이 소설 창작도 했다. 언젠가는 그동안 써놓은 시, 소설 등을 창작집으로 엮어낼 계획이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친구, 이웃사람들 모두 소중합니다. 숲 속의 나무, 들판의 작은 풀꽃, 풀밭의 풍뎅이, 풀을 뜯고 있는 염소, 모두가 소중하지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옳은 일 왕국’에서 옳은 일을 하는 늠름한 왕자님과 어여쁜 공주님으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아픔 다뤄

뮤지컬 ‘그녀들을 기억하며’
11~13일 북구 청소년수련관

극단 아트컴퍼니원(대표 원광연)이 오는 11일(오후 1시 30분), 12일(오전 10시 40분), 13일(오후 5시) 3일에 걸쳐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상마루 공연장에서 뮤지컬 ‘그녀들을 기억하며’를 공연한다. 〈사진〉

201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아트컴퍼니원의 사업협약으로 마련됐다.

이번 작품은 지난 1993년 국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루며 전국대학연극제 대상, 1994년 전국연극제 장려상 등을 수상한 연극 ‘낭자군’을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이다.

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손들이 겪는 아픔을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입장료 무료. 문의 062-268-2321.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제 강점기 광주에서 어떤 미술활동 있었나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내일 세미나

일제 강점기 때 광주에서는 어떤 미술활동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작가양성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학교 도화교육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광주미술문화연구소(대표 조인호)는 9일 오후 3시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일제 강점기 광주 미술활동과 도화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병헌(독립큐레이터·2019궁동거리 축제 총감독)씨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만석(지역미술연구가·독립큐레이터)은 ‘일제 식민지시기 광주 미술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지역미술사 연구에서 일본 유학파 등 일부 작가들 위주로 편중돼 왔음을 지적하면서 당대 시대문화로서 전체적인 미술활동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성을 언급한다. 토론자로는 김허경(미술사·전남대 학생운동연구소 연구원), 오병희(미술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씨가 참여한다. 문의 010-7605-61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9일 최순임 작가 스튜디오 탐방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을 9일 오후 6시 최순임 작가 작업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사전 신청한 관객들과 지역 작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 등은 최순임 작가 예술세계를 함께 논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최 작가는 ‘삶을 여행’이라 여기며 ‘여행자’라는 키워드를 통해 친근하고 위트 있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직접 흙을 만지고 가마를 운용해 작업물을 구워내는 과정 속에서 진실한 삶과 자아를 찾고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형상을 작업에 투영시킨다.

최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오지호미술상 특별상(2014),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2015)을 받았으며 2017년 광주아시아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선정돼 같은 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요코하마 파견작가로 참여했다. ‘GB 작가스튜디오 탐방’ 참여를 원하는 관객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8-4232.

‘여행자의 노래’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23번째 공연

12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우리 가곡으로 하나되는 공연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23번째 공연이 오는 12일 오후 7시 광주예총회관 C동 방울소리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그리움 가득 실은 파도 그대 가슴에 일렁이고’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의 초대 손님은 작곡가 임긍수와 테너 정영기다.

이날 배울 노래로는 이가인의 시에 임긍수가 곡을 붙인 ‘그리움 실은 파도’가 마련되며, 시낭송 시간은 박복숙·박영숙이 이근배 시인의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를 낭송한다.

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추억, 정다움, 사랑의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 ‘섬집 아기’, ‘안개꽃 당신’, ‘사랑하는 마음’ 등 6곡이 준비돼 있다.

회원 연주로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 ‘그대 있어 천년을 살고’ 등 19곡을 선보이며, 소리빛 중창단이 ‘그리움 실은 파도’를, 우가사 운영위원 중창단이 ‘그리운 마음’을 연주한다. 테너 정영기는 서재경의 시 ‘여정’, 하옥이의 시 ‘밤길을 걸으며’에 임긍수의 곡을 붙여 무대에 올린다.

테너 정영기

작곡가 임긍수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문화전당,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8월 21일까지 ‘2019 ACC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ACC의 대표 이미지·문구를 활용한 2D디자인’이며 총 상금은 1200만원(대상 500만원).

제안 분야는 ‘드로잉·디지털 일러스트’, ‘패턴이미지’, ‘심벌·마크 디자인’ 3가지이며 5가지 소주제를 연결해 작품을 구상하면 된다. 5가지 소주제는 ‘빛의 숲 컨셉 공공미술품, 채광정, 5개원 건물 등 전당의 건축요소 또는 CI 활용’, ‘전당 관련 자유 문구 등으로 작업한 타이포그래픽 형식’, ‘5개원의 다채로움/5개원 각각의 특징 표현’, ‘전당 관련 직접 찍은 사진을 각색한 심미성 있는 이미지’, ‘전당과 밀접한 광주상징물-무등산, 광주읍성유허, 5·18광장분수대, 회화나무’ 등이다. 문의 062-601-40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